

## 己未年과 그 以前

[東光] 제3권10호 (총26호 1931년 10월호)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말할 수 없소. 天道教와 耶蘇教 사이에 서서요. 그것도 어떻게 되어서 세상에 어떻게 전하여진 것이라고 진상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소? (하고 옛날의 활동을 추억하고 악착한 현실에서는 현실에서는 말 못하겠다는 듯한 氏의 심사는 기자의 상상뿐이 아닐 것이다. 기자는 자연히 말머리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때 나는 中央學校에 先生(校長)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구나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때의 일반민중의 人心이요? (묻는 기자가 실수다. 그때야 조선이 합방된지 불과 십년, 두사람이 만나도 새나 쥐가 없나 하여 음성을 낮추던 시절이다) 그때는 천지가 음울하고 음산한 기운이 들고 있었습니다. 思想의 統一, 思想의 통일이 그때의 가장 重要한 條件이었지요. 思想의 統一. (하고 다시금 입에 놓이는 그 思想의 統一이라는 것은 온 조선사람이 조선을 사랑한다는 民族主義思想을 가르침이다 - 記者註) 現在 나로서는 이 問題에 對하여 더 말할 수 없소. 다른 이 보고 부분적으로 물어서 종합해 보시오.(記者는 方向을 全然 轉換하여 氏의 學生時代를 물었다. 만세이전의 추억이 능히 만세당시의 氏의 활동을 추측하는 데 한 재료가 될 줄 안 까닭이다) 우리가 처음에 東京에 留學을 하던 때는 留學生이 한 百名이나 되었을까, 좀 더 되던 것 같습니다. 大韓興學會라는 것이 있었지요. 그 '韓'字가 합방이 없어지고 七, 八年後에 學友會라는 것이 생겼소. [學之光]은 누구지요? 처음에 우리가 시작하고 金炳魯氏가 編輯兼 發行人이었던 것 같습니다. 創刊辭도 내가 썼지요. 一, 二號 난 후에 學友會로 넘겼다고 記憶됩니다 (이런 것을 쓰지 말라는 것을 다 쓴 文責은 勿論 記者에게 있다)